

아빠들의 육아퀴즈 한판...광주서 골든벨 울렸다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에 참가한 아버들이 퀴즈에 집중하며 문제를 풀고 있다.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광주시, '제5회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성료

OX퀴즈·공연 등 함께 공감한 '돌봄 축제의 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3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성 평등한 가족 돌봄과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은 주말을 맞아 함께 나온 가족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로 가득 찼다. 행사는 아빠들의 실력을 겨루는 퀴즈대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육아상식 및 최신 돌봄정책 오엑스(OX)퀴즈 ▲객관식·주관식 문제로 구성된 골든벨 퀴즈대회 ▲태권도 시범공연 ▲시낭송 등극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출출함을 달래줄 간식 부스와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점수 단계부터 '함께 육아'를 실천하려는 아빠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 5월20일부터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당초 모집 인원이었던 50명을 훌쩍 넘어 90여 명의 아빠가 지원하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예선전을 통과한 아빠들이 결승에서 손에 땀을 쥐는 경쟁을 벌인 끝에 남구에 거주하는 이은 아빠가 영예의 골든벨(우승)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우승을 차지한 아빠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최신형 블렌더 믹서기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준우승자에게는 무소음 써큘레이터가 수여됐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블루투스 체중계가 기념품으로 증정됐으며, 현장 행운상, 응원상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오미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 행사가 아빠들의 적극적

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성평등한 돌봄 축제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돌봄문화를 확산하고,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화 여성가족장은 "초보 아빠들이 육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 등 체감도 높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은 13일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육아 퀴즈대회 등이 진행됐으며, 남구의 이은 아빠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가영 기자

기아, FIFA 월드컵 2026 공식 파트너 캠페인 전개

기아가 FIFA 월드컵 2026™(이하 FIFA 월드컵)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유소년 선수들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먼저 기아는 6월 11일(목, 현지시간) 월드컵 개막에 맞춰 기아의 월드컵 브랜드 메시지인 '영감은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Inspiration connects us all)'와 연계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소년 축구 선수의 도전을 응원하는 '히어로 필름(Hero Film)'을 공개했다고 12일(금) 밝혔다.

히어로 필름은 월드컵 경기에서 공인구를 심판에게 전달하고 선수진과 함께 입장하는 기아 '오피셜 매치볼 캐리어(Official Match Ball Carrier, 이하 OMBC)'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소년 선수가 '티에리 앙리(Thierry Henry)'를 비롯해 각국을 대표하는 축구 레전드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월드컵 무대

에 서게 되는 여정을 담았다.

이번 영상은 유소년 선수가 전 세계 축구팬들의 꿈과 열정이 만든 월드컵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과 긴장·기대·설렘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집중 조명하며, 월드컵이라는 새로운 경험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성장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영감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아는 월드컵이 진행되는 6월 12일(금, 현지시간)부터 7월 10일

(금, 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델러스 등 경기가 열리는 도시 및 경기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축구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월드컵이 사상 최초로 3개국(미국·캐나다·멕시코) 공동 개최라는 점에 착안해 삼각형 구조에 감각적 디자인을 가미한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개최 국가 및 도시 테마의 차량 전시 ▲팬들이 응원 국가 유니폼을 입은 모습으

로 맞춤형 선수 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축구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기아는 2007년부터 FIFA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각종 글로벌 대회에서 혁신적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광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 랜드마크 라이프 양동 그랑레브

65A·B/84A·B 총 619세대 | 84A·B 마지막 50세대

시공예정사
BS 한양

062)412-1700